

김멜라

계엄 파편

내가 좋아하면 사라진다. 나는 이 가설을 꽤 진지하게 품고 있다. 십수 년간 꾸준히 축적되어온 씩씩한 경험의 가르침이다. 연인과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꽃집, 액세서리나 옷 가게, 단골이 된 헤어디자이너까지, 호감을 품으며 아끼는 대상은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내 곁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비주류의 취향이 정치로 옮겨 가면 더 확연한 결과를 맞는다. 내가 특정 후보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뛰고 머리가 상쾌해진다면 명백한 위험신호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그 사람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픈 마음이 들면 선거의 결말은 보나 마나다. 설마 저런 인물이, 저런 말과 저런 집단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리 없다고 확신하면 내 기대와 안일한 믿음은 승패의 격차를 벌리며 여지없이 부서진다.

물론 이러한 경험의 일반화가 빨간 팬티를 입으면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운동선수의 미신만큼이나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불안의 징후라는 것은 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낙선이 고작 '나'라는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인지하고 있다. 밤하늘의 달이 자꾸 자기만 따라온다고 믿는 아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데서 오는 논리적 오류이기도 하다. 문제는 나의 바람이나 예측이 틀릴 확률이 아니라 그러한 어긋남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다. 언제까지 낙심하며 주눅 들어 있을 텐가. 이왕에 유아기적 투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다른 쪽으로 재능을 발휘하면 어떨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어진 일반적인 순서도를 거슬러보는 것이다. 전이나 사변이 일어나 비상계엄이 발동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출현해 사변과도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졌듯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이’ ‘말똥이’처럼 혼하고 천한(그러나 개똥과 말똥은 당연히 귀하므로 이러한 작명 방식은 흠친 편지를 책상 위에 던져놓는 일종의 선입견 트릭이다) 별칭을 붙여 주었다. 그러니 반대의 길도 가능하다.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수록 칭송과 찬미를 퍼부어 별거벗은 임금의 파국을 유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폭군과 독재자의 곁에는 아첨꾼들이 가득했다. 장막 뒤에서 속삭이는 최측근과 동문의 장관 들은 사실 몹시 요긴한 파멸의 지렛대가 아니었을까. 그들은 특정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자아도취의 가스를 내뿜으며 이런 유혹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계엄.

*

1980년 5월 불법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에 ‘계엄’이 봉인 해제되었다. 처음엔 놀랐고 믿을 수 없었고 화가 났으며 아연실색했고 격분에 휩싸여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지금은 다른 길을 도모해보자. 내가 좋아하면 사라진다. 이리 오렴, 계엄아. 반갑다, 포고령아. 너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 시절 그 계엄의 무덤을 파헤치게 되었구나.

아래는 1980년 5월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다. 마치 2024년의 계엄 상황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다.

전국적으로도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판단되어 계엄확대 선포안을 제출한다고 제안 설명을 한 후 반대 토론 없이 8분 만에 이를 의결시키고, [……] 비상계엄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5.18. 01:00경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휴교, 공공집회에서의 선동적 발언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불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고,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¹⁾

*

내가 계엄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은 현실에서 그것이 벌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리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돼 그에 관한 특집 지면이 만들어지고 내가 필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사태 그 자체일 따름이다. 계엄의 유혹과 시도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담화문으로 발설되기 전까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했다. 적어도 나는 서울 상공을 빈번히 점령하는 전투기 소음이, 알게 모르게 전쟁 불안감을 조성했던 국군의날 기념식 준비가 그 타임라인의 서너번째 기점이라 생각한다. 어느 쪽은 의심하며 경계했고 또 다른 쪽은 계엄을 외계인에 비유하며 실제 없는 유언비어 취급했으나 그 설마설마는 한밤중에 실제로 자행되었다. 이때의 계엄은 비상시 군부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다. 그렇다고 은유의 활시위를 저 멀리 잡아당겨 ‘살아 있음이 모두 계엄 아니던가’ 하는 언어적 비약을 감행할 시기도 아

(1)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일부). 강조는 인용자.

니다. 다만 나는 이 계엄이 바깥에서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싹터왔음을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은 나폴레옹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유럽인 전체의 열망이 합쳐진 필연의 결과였음을 밝힌다. 작가는 속칭 위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사소하게 여겨지는 개개인의 내면을 추적해 그들의 “무리적인 삶”⁽²⁾을 인류의 무의식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전쟁을 향한 대다수의 들끓는 바람이 나폴레옹이라는 도구를 불러낸 것이다. 지금 나에게 당도한 계엄령과 포고문 역시 그러하다.

만약 내 이웃의 누군가가 수세에 몰려 판을 뒤집을 타개책을 바랐다면, 못마땅한 현실을 대변에 꿰맞출 거대하고 속 시원한 음모론을 갈구했다면, 자신 외의 모든 의견을 발밑에 두고 반대파를 단방에 쓸어내고 싶었다면, 그 하나하나의 계엄이 뭉쳐 오늘날의 폭발물로 터진 것이다. 크든 작든 우리는 그 파편에 데고 찢기며 일상이 뒤흔들렸다. 공동체로 묶여 있는 한 누구도 계엄 바깥에 머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특정 집단의 괴물 같은 도발로 한정 지어 계엄 세력과 개인 사이에 담벼락을 둘러칠 수도 없다. 선량한 개인이 개인으로 그칠 수 있는 것 또한 혜택이며 행운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 최악의 학살은 그 하나하나의 얼굴이 집단이란 단일한 표정 안에서 뭉개져 추상화의 도취가 극에 달했을 때 뒤따라왔음을 기억한다. 천황을 위해, 게르만 민족을 위해, 신의 뜻을 받들어. 그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인류의 바깥으로 쫓아내 없앨 수 없었다. 사랑이 진실이라면 증오 또한 진실이며 나는 그 양쪽의 결과물이자 대물림의 연결 고리다. 그러므로 괴물은 내 이웃이고 계엄 또한 나의 일부다. 계엄은 여럿의 꿈이자 열망이었으며 제발 누구 하나라도 터뜨려주길 바라

(2)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중), 박종소·최종술 옮김, 을유문화사, 2019, p. 391.

는 집단의 총동이였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계엄이 있어야만 했다는 합리화의 목소리는 어째서 예나 지금이나 점점 더 커지는가.

*

8년 전 광화문 촛불집회 때 사촌 동생은 초등학생이였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녀살이 좋아 냉면 한 그릇 사 주겠다는 나에게 정말 맛있는 초밥이 있다며 일식집의 정식 세트로 내 주머니를 얇게 만들었다. 무척이나 사교적인 성격에 예의 또한 깎듯해서 나를 비롯한 사촌 누나들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쓰며 명절 때마다 스몰 토크를 시도했다. 어느 날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이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광화문에 가서 집회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위험한데 조심히 다녀라.”

“어린애가 거기 가서 뭐 하는데.”

과일을 먹으며 어른들이 말했다.

“안 위험해요. 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먹기도 해요.”

“먹을 거 많아서 가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노래도 좋아요.”

“어떤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잠깐 몇 소절 따라 불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가서 꼬치구이 사 먹어라.”

어른 중 한 명이 용돈을 건넸다. 그 애는 한사코 마다했으나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몹시 무거운 책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지폐를 받아 들었다. 그 뒤로 나는 「헌법 제1조」 노래

를 들으면 자연스레 사촌 동생이 꼬치구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른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해 공부에 손에 안 잡혀 나왔다는 어느 청년의 자유 발언을 들으며 나는 지난해 대학교 신입생이 된 사촌 동생이 생각났다. 동생아, 너도 시험공부하는 대신 여의도에 나왔니? 이번에도 꼬치구이 많이 사 먹었니?

*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국회대로에서 열렸던 시기, 공교롭게도 나는 2, 3일에 한 번꼴로 국회도서관에 갔다. 어떤 일을 맡게 되어 그해 문예지에 발표된 한국의 단편소설을 빼놓지 않고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공공 도서관이 있었으나 비치된 간행물의 수가 적기도 했고, 그 무렵에 나는 여의도 체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할 것 같았다. 평상시 국회 정문의 좌우는 파룬궁의 신도들과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이 문지기처럼 버티고 있다. 그나마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5층의 통유리창 너머로 널따랗게 펼쳐진 한강의 정경은 어느 때나 아름다웠다. 계엄이 선포된 그 주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의사당의 옥색 지붕을 배경으로 단편소설을 읽었다. 두세 시간 연달아 읽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 더는 볼 수 없었고 다음 날을 기약하며 밖으로 나갔다. 매일 늦은 오후부터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나도 그 돌레에 포함돼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고 나는 근처를 떠돌다 영등포구까지 갔다. 어느 평생학습관 열람실에서 한나절을 보낸 뒤 시위 시간에 맞춰 길을 나섰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데다 주변이 온통 캄캄하고 낮설어 집회 현장까지 다시 가는 게 아득했다. 지하철도의 위아래로 차들이 쌍쌍 지나갔고 여의2교로 통하는 건널목 신호가 유달리 길게 느껴졌다. 그때 어두운 길 저편에서 전

자 촛불을 든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어디를 봐도 나와 목 적지가 같은 동행이었다. 표결 전날이었음에도 사방의 갈림길에서 손 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행렬에 섞여 나도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멀리서 쿵쿵 울리는 노랫소리(언제부턴가 나는 「다시 만난 세계」의 전주만 들어도 눈물이 맺힌다)가 반가웠고 거리를 메운 무수한 불빛에 안도했다.

*

작금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재판은 그다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건이다. 불법 계엄 측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는 현대 정치사에서 낯선 용어가 아니며,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편파적인 방북 허용, 1993년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 2003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도 단골로 등장한 정부 측의 주장이었다. 그중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며 주식 11주를 손해 봤다는 어느 국민의 소송에 사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금융실명제는 적법한 통치행위이다)하면서도 판결문에 통치행위의 발동 요건과 그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며 권한의 남용과 악용을 경계했다.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³⁾

(3)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다시 말해 비상계엄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즉 공무원의 한시적 권한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때의 기본권이란 ‘12·3 포고령’에서 금지하고 통제하려 시도한 정치결사, 집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정치결사, 집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그 어떤 통치행위보다 우선함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의 판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⁴⁾ 만약 포고문이 작성만 되고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지 않았더라도, 몇 시간이건 몇 분이건 법에 제시된 마땅한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고문이 작성돼 선포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탄핵과 파면이 성립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헌법적 요건이다.

*

어디선가 작가가 된 계기를 물었을 때 나는 드라마 <모래시계>를 말했다. 거의 서른이 될 무렵까지 소설가가 되리란 생각은 미처 못 했고 어렸을 땐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를 쓰고 싶었다고 했다. 그 드라마의 방영 당시 나는 열한 살이었다. 극 중 ‘혜린’이 술 취해 비틀거리며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을 하는데 자신은 돈을 내고 쌀을 사 왔다며 우는 장면이 내 인상에 깊이 새겨졌다. 동일방직이 뭔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목숨 건 투쟁을 보고서도 자신은 배가 고파 쌀을 사고, 또 그렇게 쌀을 살 수밖에 없는

(4)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1980년 5월의 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임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유린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마찬가지로 1980년 10월에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에 관해 대법원은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이므로 위헌이라 판결했다.

처지가 부끄러워 우는 동시에 그 눈물을 자조하는 몇 겹의 모순이 어린 나에게 짙게 와닿았다.

그리고 나는 ‘태수’가 직장 후배인 ‘진수’의 고향에 갔다가 겪은 일을 기억한다. 드라마 속 진수와 명수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너무도 붕어빵처럼 닮아서 나는 감독이 캐스팅을 참 잘했구나, 하고 나름대로 드라마의 만듦새를 평가했다.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진 허구를 보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론 화면 속 저 상황이 실제 사건일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당시만 해도 나는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배운 적이 없었다. 다만 헤린이가 증얼거린 동일방직의 일이 허구가 아닌 것처럼(어떤 사건은 사전 정보가 없어도 거기에 깃든 고통이 단박에 느껴진다)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가 모르는 현실의 반영임을 짐작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군대에 간 ‘우석’이 왜 어두운 숲길을 헤쳐 가는지도 통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지 못해 자주 집중력을 잃었다. 그러다 진수가 죽고 고등학생인 명수마저 도청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자 명수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온 태수를 찾아간다. 태수를 따라 도청에 간 명수의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너희 어머니도 너 여기 있는 거 아시냐?”)에 나는 그 장면이 만들어진 허구임을 잊고 숨죽인 채 빠져들었다. 그 대화 속 명수의 어머니가 보이는 침묵과 망설임, 손수건을 움켜쥐며 친구 어머니의 심정을 떠올리는 찰나의 헤아림, 자식의 친구는 위험한 곳에 남겨두고 차마 자기 자식만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의 도리…… 그리고 명수의 어머니는 자신이 명수 대신 도청에 남겠다는 태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안 돼야, 반장님은 타지 사람인데 살아 있어야지. 살아서 녀들한테 우리 애길 해줘야지. 우리 말은 안 믿을지 모르게, 반장님 같은 타지 사람이 우리 애길 해줘야 써. 그것이 나의 부탁이고 우리 진수의 부탁이여. 거절허진 않겠지?”

십수 년이 흐른 뒤 명수의 어머니를 연기했던 배우는 극 중 자식들을 해친 내란 세력의 후신인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된다. 특정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나라는 사람은 실상 내가 쓰는 말들의 연기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

계엄이 선포되고 우여곡절 끝에 해제되었던 날, 늦은 새벽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국회 앞으로 가려 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엄마가 가선 안 된다고 만류했다. 추운데 차도 없이 할머니 혼자 그 밤에 어디를 가느냐고. 엄마는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며 이번에도 빨리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 덕분에 이만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과거 시위 때 내가 겪었던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떠오르며 순간 엄마가 경찰 곤봉에 맞아 피 흘리는 망상이 가득 찼다. 열은 공황 상태에 빠진 나는 급기야 나 자신을 인질 삼아 엄마를 겁박했다. 그럼 내가 먼저 달려가겠다고, 내가 앞장서 담장을 넘고 저것들을 가만 안 둘 테니(실제로는 이보다 더 과격한 표현을 썼다) 엄마는 집에 계시라고 했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

어쩌면 내가 드라마 속 현대사에 조금이나마 감응한 것은 나의 삼촌 영향일지 모른다. 물론 당시 내가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역사에 무지했듯이 어릴 때 나는 삼촌에 관해 아는 게 없었다. 그 때와 비교해 지금도 아는 게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나는 삼

촌이 가족의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30년 넘게 터를 잡고 사는 이유가 궁금해 딱 한 번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삼촌은 공장 활동을 얘기했다. 대학생 때 그 지역으로 공활을 갔는데, 일 끝나고 소주 한잔하던 기억이 좋아 졸업 후 다시 갔다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데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아서 혼자 밥통 하나만 사서 갔다고. 이야기는 그게 끝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짤막한 이야기 속 ‘밥통’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밥통은 뭘까. 쌀은 뭐지.

*

2024년 12월 22일 오후 4시, 공주 우금치에서 출발한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 남태령에서 저지 세력과 대치한 지 29시간 만에 차벽을 뚫었다. 1만 명의 시민이 영하의 한파 속에서 시위대와 함께 했을 때, 나는 그런 소식은 모른 채 도무지 낯질 않는 몸살 때문에 서너 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마감을 앞둔 일을 했다. 인터넷 뉴스로 트랙터의 사고 소식을 보고 마음을 졸였을 뿐 SNS를 통해 연대의 힘이 뜨겁게 모여들고 있다는 걸 몰랐다. 가장 밤이 길었던 동짓날, 강추위에 떨며 자리를 지켰던 시위대를 향한 부채감에 나는 협소한 나의 연대와 굵든 행동력을 뉘우쳤다. 그러다 국무총리가 거부한 양곡법이 무엇인지, 왜 농민을 위한 법을 농림부 장관이 반대하는지, 농민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국내 수입 쌀 비율은 어떤 국제조약에 의해 속박당하는지, 농민들의 투쟁과 관련된 사안을 찾아보느라 뒤늦게 밤을 새웠다. 소설을 쓰면서 내가 갖게 된 생각의 습관이 있다면 특정 의견에 내 마음이 기운다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애를 ‘반대’할 다수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믿음의 문제이니 학교에서 둘 다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도, 나는 그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조사하며 그 사고의 과정을 재구성하려 노력한다.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어떤 견해도 그 지점으로 가는 나름의 과정이 있다. 비록 그 사고의 질이 저차원과 고차원으로 나뉘어 피상적이고 근시안일수록 자기의 확신을 진리로 승격시킨다 해도 말이다. 안타깝게도 나를 비롯한 인간의 경험과 의식은 4차원에 한정되어 있기에, 빅뱅 이후 어딘가로 숨어버렸다는 10차원의 나머지 공간들은 상상하기조차 버겁다. 누군가는 잔디밭에 널브러진 물 호스를 보며 기다란 직선만 인지할 뿐 그 선의 굵기나 물이 통과하는 이면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기계가 발명되었으나, 압도적인 정보력과 수리력을 지녔다 해도,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컴퓨터가 단 2백 초 만에 풀어 버린다 해도, 모든 경우의수를 동원한 가정법에 불완전한 ‘인간의 삶’이 개입되는 한 무결점의 해결책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충돌하는 주장들에서 어떤 가치를 공동체가 우선하느냐다. 네 의견도 맞고 어쩌면 나의 견해도 맞다. 그러나 옳다는 것은 모두 일부분일 뿐 어느 차원에서선 우리 모두 틀리고 있다. 이때 자신의 좁은 시야를 깨닫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더 아프고 더 불리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방향, 자신에게 위험한 방향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다.

*

대학 시절 나는 충북의 한 지역으로 농촌 학생 연대 활동을 갔다. 어느 해엔 1년에 네 번이나 갔으니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날보다 밀짚모자를 쓰고 고추밭에서 흙을 파던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여름방학 땀 농활대의 대장으로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형님들의 신뢰와 애정을 받았다. 우선 나는 막걸리를 잘 마셨고 묵

묵히 일하는 타입에다 시위에 나가 아스팔트 농사도 잘 지었다. 일하다가 잠시 마을 주민의 집에 들어가 쉴 때는 소파에 등을 기대거나 발을 쭉 뻗고 앉지 말라는 농활대의 생활 규칙도 식은땀을 흘려가며 지켰다. 그때 옆 마을에 살던 청년회장님이 떠오른다. 나는 그분의 집에 한두 번 갔는데, 외진 언덕배기에 자리한 빼뚜름한 집이 다른 주민들의 집보다 허름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나와 같은 학교의 선배로서 농활을 통해 그 지역과 연이 닿아 졸업 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삼촌의 공활 이야기를 몰랐던 터라 ‘아, 농사가 되게 좋으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내분도 같이 농민회 활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다 몇 년 뒤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 형님이 밤중에 트럭으로 농활대 학생들을 데려다주다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무사했으나 운전했던 그 형님은 마주 오는 음주 운전 차와 충돌해 돌아가셨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그분은 자신에게 위험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했다. 자신에게 위험한 방향. 이 말은 나에게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판단을 내리거나 계산할 틈도 없이 나온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었을 것이다. 어떤 무의식이 작동해야 자신에게 위험한 방향으로 핸들을 틀 수 있을까. 나는 그 몸짓을 이해할 수도, 나의 것으로 공감할 수도 없었다. 헤아릴 수 없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소설을 써보았으나 내가 꾸며낸 허구 속에서도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되묻는 질문자에 머물렀다.

*

“괘팡이 어때?”

그 이름과 그 이름에 붙은 직책을 활자로 적고 싶지 않아

해당 인물을 다르게 부를 방법을 떠올리는 데 이 글의 집필 시간 중 절반을 소모했다. 호칭을 고민하느라 근육통을 앓는 내게 연인은 아이디어를 건넸다. 꽤짱이는 말이나 행동이 괴이하고 엉뚱하다는 뜻의 ‘꽤짱스럽다’에서 착안한 조어다. 실제로 나는 그 인물을 꽤짱이라 칭하며 한동안 이 글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임시방편이라 해도 그치에게 꽤짱이를 붙여주기엔 꽤짱이가 소중하다. 얼마나 예쁜가, 꽤짱이. 결국, 나는 그 인물을 단호하게 지칭하는 것에 실패하며 나의 무능과 자괴감을 마주했다. 집필 시간의 나머지 절반도 내가 이 글을 쓰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심에 시달렸다. 그 자각 또한 끝까지 열어지지 않았고 나보다 더 치열하게 현장에 머물며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이들이 내가 전하지 못한 순간순간의 생동을 올바르게 증언해주시리라 믿는다. 나로서는 자격 없음의 반성과 무안함으로 고작 이만한 나의 바탕을 꺼내 보였다. 12월 3일부터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 생활과 맞물린 기억을 여기에 기록했다. 무엇이든 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다. 나는 이 자유를 나의 공동체와 함께 종생토록 누릴 것이다. 위협당할 시엔 고질적인 나의 불안과 망상을 던고 싸움의 대열에 같이 설 것이다. 서로를 억누르는 공포가 아닌 ‘네가 그곳에 있으니 나 또한 그 자리에 있겠다’는 연결의 끈을 붙들고서. ‘좋아하면 사라진다’는 나의 가설에 대한 반론의 증거들을 채워가고 싶다. 40여 년의 시차를 깨뜨리고 출현한 불법 계엄은 나에게 그 사수의 힘을 일깨워주었다.

김멜라

2014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적어도 두 번』, 『제 꿈 꾸세요』, 장편소설 『없는 층의 하이센스』, 『환희의 책』, 산문집 『멜라지는 마음』 등이 있음.